

GIANNI VERSACE ,1946.12.2~1997.7.15

<성장>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출생인 그는 어머니가 재단사였으며 여동생인 도나텔라와 형제 산토가 회사의 요직에서 함께 일하였었다.

건축학과를 밀라노로 그 곳에서 방향을 틀어 패션과 텍스타일을 공부 하였다.

제니, 칼라 강 등과 프레타포르테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였으며

1979년에 여성복 컬렉션을 시작 하였다.

그 후 세계 곳곳에 부띠끄를 설립하고 오피꾸띠르 라인인 아틀리에, 지아니 베르사체

대중을 위한 라인인 이스탄테, 남성복의 대중화 라인인 브이 두 바이 베르사체,

마담 사이즈 브랜드 베르사틸, 캐릭터 캐주얼 베르수스, 베르사체진 등

액세서리를 포함한 다양한 브랜드를 전개 한다.

액세서리, 가죽, 모피, 향수 등과 발레의상도 디자인 하였다.

그러나 **1997**년 자택 앞에서 앤드루 커내넨이라는 청년에게 권총으로 피살 되었다.

<상업적인 감각>

그는 상업적인 감각에도 탁월 했는데 베르너의 일러스트레이션, 아베돈의 예술사진 광고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패션을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 시켰다.

또한 금속성 직물을 기계로 짜내는데도 성공하였고, 남녀 모두에게 가죽옷을 보급한 것도

그가 새로 시도한 일이었다.

그가 죽은 뒤에 베르사체 하우스를 이끌고 있는 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의

뮤즈 역할을 하였으며 베르사체의 세컨트 라인인

베르수스 라인을 디자인 했다.

그녀는 베르사체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오빠가 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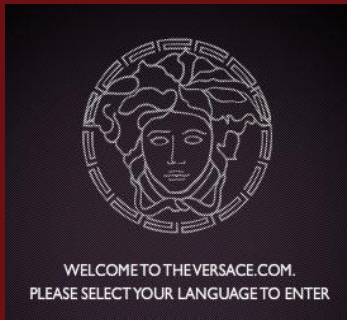
히 했던 모던하고 산뜻한 측면을

더하여 좀더 실용적인 의상을 받는다는 평을 받기

도 했다.



GIANNI VERSACE, 1946.12.2~1997.7.15



<베르사체 로고와 디자인>

베르사체의 로고는 아테네 여신의 저주를 받은 메두사를 사용한다. 지아니 베르사체의 옷들에는 메두사의 매혹적인 마법이 걸려있다.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전통을 현대화한 신고전 주의자로 과거의 것에서 정교한 기술을 재발견한 디자이너였다. 쿠뛰리에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는 입체 재단에도 뛰어났다. 전세계에 유행했던 헤드 두 투룩은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맵시, 균형과 조화에 대한 정확성, 과감한 색채감이 어우러져 탄생되었다고 한다. 그이 디자인을 보면 섹시하고 육감적인 여성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다.



<도나텔라 베르사체>

1955년 5월 2일 이탈리아 태생
오빠 지아니 베르사체
프로렌스주립대학 패션디자인 학사

베르사체 수석 디자이너
1993년 베르수스 디자이너
2004년 밤비상 패션부문
2005년 여성세계상 패션상



GIANNI VERSACE, 1946.12.2~1997.7.15

2010 s/s 컬렉션



이번 컬렉션은 지아니 베르사체의 뜻을 이어받은 도나텔라 베르사체가 80년대를 휘어잡던 지아니 베르사체의 스타일을 2010년의 시대에 걸맞게 되살려낸 것이다.

글래머러스한 여상을 가장 세련되게, 섹시하게 만드는 것은 베르사체의 특기인만큼 이번 컬렉션도

더욱 세련된 글래머러스를 잘 표현하고 있다.

아이스크림같은 컬러와 바로크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다양한 프린트들이 잘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핫한 미니들과 몸매를 과시하는 디자인들이 등장하였다.

그밖에도 다양한 소재와 체인, 조각모음, 스텐드 등으로 완벽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